황각규 '韓-印尼동반자협의회 이사장' 선임

〈롯데 부회장〉

롯데는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사진)이 '한-인니동반자협의회'의 이사장에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

한-인니동반자협의회는 이날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황 부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한-인니동반자협의회는 지난 2014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계 지도자들이 양국간의 상호교역과 투자증진을 위해 친선도모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롯데그룹은 '한-인니동반자협의회'가 출범될 때부터 함께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NH농협금융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NH농협금융지주는 10일 서울 홍제동에서 서울지방보훈청과 공동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연탄과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최창수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왼쪽에서 세번째),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NH농협금융지주 및 서울지방보훈청 임직원들이 국가유공자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농협금융

IBK투자증권, 아동양육시설에 1000만원 기부 IBK투자증권은 10일 소외계층 아동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에 '사랑의 희망걷기'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랑의 희망걷기는 만보기 앱을 통해 봉사 참가자의 걸음수만큼 기부금액이 정해져 참가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기부 캠페인이다. IBK투자증권 김영규 대표이사(왼쪽)가 혜심원 권필환 원장에게 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위니아딤채, 성남시에 에어워셔 170여대 기부 위니아딤채가 성남시에 건강한 공기를 선물했다. 위니아딤채는 9일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위니아 에어워셔 170여대를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는 기부받은 위니아 에어워셔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겨울철 취약계층에 제공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이덕은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혁표 위니아딤채 대표이사, 은수미 성남시장, 성명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위니아딤채

한국필립모리스, 언스모크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필립모리스가 지난 4일 여의도 본사에서 '언스모크(Unsmoke)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언스모크 캠페인'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캠페인으로, 개인과 공중보건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연 메시지와 동시에 일반담배로부터 혁신 제품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동영상UCC와 포스트 부문에 총 375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중 총 3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한국필립모리스

한해의 끝자락, 되돌아본 1년

홍경한의 시시일각

2019년이 저물고 있다. 행복인지 절망의 연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린 어떻게든 살아남아 다사다난했던 한해의 끝을 지켜보고 있다. 잊으면 잊힐 듯싶어 기록하고 있다. 미술계는 어땠을까. 이곳 역시 분주했다.

올해도 아트페어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화랑미술제(2월)를 시작으로 아트부산(5월), 한국국제아트페어(9월), 부산국제아트페어(12월)에 이르기까지 70여개에 달하는 장터가 쉴 새 없이 열렸다. 여기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작가미술장터'까지 가세하면서 미술판은 그야말로 '장사판'을 방불케 했다.

허나 그림 팔아 생활이 크게 나아졌다는 작가는 보이지 않았다. 세금까지 써가며 작가들이 직접 미술품을 판매하도록 했지만, 시장질서만 교란시켰을 뿐 대부분의 미술인들이 겪는 생활고는 변한 게 없다.

다행히 한편에선 예술가들의 창작환경 개선과 민생고 해결을 위한 시도가 이뤄졌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사업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 시범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행했다. 내년엔 올해 대비 지원 대상 및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돈을 뿌리는 게 반드시 정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자립 환경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작가들을 향한 지원이 다양해진 반면 전시기획자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부산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행사에서 한국 기획자들의 비중은 제로에 가까워졌다. 원고료 몇 푼에 기대어 살아가는 평론가들의 형편도 개선되지 못했다. 인건비는커녕 제 돈 쓰지 않으면 다행인 독립기획자들과 무대가 없는 30~40대 젊은 비평가들, 나이 지긋한 전업비평가들은 '소속' 없는 백수에 불과한 현실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영민하게 제 살길을 찾아 자리바꿈을 거듭했다. 공석이던 국립현대미술관장에 '근대미술사가'가 코드 및 특혜 논란 끝에 지난 2월 1일 취임했으며, '그랜드슬럼'이라도 달성하려는 양 인맥과 정치력을 무기로 미술계 주요 요직을 떠도는 철새들의 날갯짓도 일 년 내내 이어졌다. 물론 언제나처럼 실력이나 성과는 '묻지마'로 남았다.

한쪽에선 어좌에 앉아 미술계 권력이 될 때 또 다른 쪽에선 스스로를 내려놔야만 했던 비보도 있었다. 8월에 들려온 미술가그룹 '옥인콜렉티브'의 멤버 이정민, 진시우 부부작가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도 그 중 하나였다. 그렇다고 미술계가 전년과 비교해 더 침울하거나 덜 역동적인 건 아니었다.

2017년 3월 홍라희 관장 퇴임 이후 기획전 없이 소장품 중심의 상설전만을 하고 있는 삼성미술관 리움과 달리 국공립미술관들의 몸짓은 활기찼다. 지난해 6월 호평 속에 막을 내린 개관 전 이후 연일 매진 행렬을 빚은 부산현대미술관은 '레인룸'(8월 개막)으로 또 한 번 부산 문화예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3월부터 관람객을 맞아 4개월간 37만명이 다녀간 서울시립미술관의 '데이비드 호크니' 전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9월 시작된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 기념전 '광장: 사회와 미술' 또한 2019년 후반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이 밖에도 10월엔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격년제로 진행하는 국제미술전인 '2019 바다미술제'가 '상심의 바다'를 주제로 개막했으며, 같은 달 청주에선 공예특성화비엔날레를 표방한 청주공예비엔날레가 개최되어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공예비엔날레의 경우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이 뒤섞여 정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예도 미래도 안 보이는 비엔날레'라는 혹평을 받았다. 특히 1차 전시감독 공모에서 탈락한 감독이 기획위원 추천을 통해 다시 감독에 선임되는 황당한 사건에 일부 기획위원들이 반발 사퇴하는 등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기타 민중미술 계열의 전시들이 여럿 규모 있게 펼쳐졌으나 일부는 내부를 향한 침묵에 습관화된 철 지난 노스텔지어의 소환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11월 이후 공모를 실시한 국내 주요 레지던시들은 지원 작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작금의 우울한 경제상황을 반영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 김환기의 대작 '우주(Universe 5-IV-71 #200)'가 한국작가로는 처음으로 경매에서 132억원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이 해외에서 타전되어 세밑 미술계를 훈훈하게 했다.

/미술평론가

효성,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10억 기탁

사랑의열매 사회복지모금회에 전달

효성이 연말 어려운 이웃에 온기를 전했다.

효성은 10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억원을 전달했다.

앞서 효성은 연말마다 마포구 주민에 사랑의 쌀과 김장김치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해외의료봉사단 '효성 미소원정대'와 해외아동 결연 사업 등 나눔 실천을 이어왔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좀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효성은 사랑의 열매에 연말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 사진은 효성 최영범 커뮤니케이션실장(왼쪽)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연순 사무총장. /효성

인사

◆**한양증권** ◇ 실장 신규선임 △ 프로젝트금융실장 신준화 △ 투자금융실장 민은기 ◇ 부서장 신규선임 △ IB솔루션부장 김지형 △ 투자금융부장 성정현 △ 프로젝트금융부장 나성호 △ 부동산금융부장 오세원 △ SF금융부장 김호철 △ 특수금융부장 정해동 △ 복합금융부장 이시진

◆**한국콜마** ◇부회장 △ 윤상현 ◇전무 △ 김도연 △한상근 △전웅기 ◇상무 △ 박홍권 △전태영 ◇상무대우 △ 김선영 △김태호 △계성봉 △홍인기

◆**현대약품** ◇ 전무 △ 미래전략본부 이재훈

◆**뉴데일리** △ 정치부 부장 백종호

부음

▲ 이성우씨 별세, 이광훈(해성크린텍 대표이사)·광희(해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미숙씨 부친상, 김오영(법무사)씨 장인상. 9일 오후,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031-219-4601.

▲ 윤용전씨 별세, 윤재구(KBS 국제부 중국지국 기자)·인구(자영업)씨 부친상 =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12일. 02-923-4442.

▲ 신병권씨 별세, 신용남(전 우리은행 지점장)·경렬(SBS 미디어홀딩스 대표)·경수(지속성장연구소 소장)씨 부친상 = 10일, 광주 송정장례식장, 발인 12일. ☎062-941-4400.